

미래모빌리티 분야 인재양성 ‘맞손’

전북대-군산대-군장대-전주비전대, 협약 체결
친환경자동차 등 4차 산업기술 적용 분야 협력 강화

전북대학교 LINC3.0사업단 친환경미래모빌리티센터(센터장 이덕진)는 전북지역 미래모빌리티 분야 인재양성 및 산업활성화를 위해 군산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단장 이호), 군장대 LINC3.0사업단 미래자동차센터(센터장 채왕석), 전주비전대 LINC3.0사업단 친환경모빌리티센터(센터장 유성구)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4개 기관은 지난 2일 전북대 공과대학에서 협약을 체결. 전기차 및 수소차를 포함한 친환경 자동차와 자율주행차, 그리고 스마트 상용차 및 특정목적차량 등 4차 산업기술이 적용된 미래 모빌리티 산업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협약 참여 기관들은 미래모빌리티 분야 핵심 인재양성 및 공동 기술 개발과 연구동향 및 기술정보, 인프라 공유 등을 통해 전북지역 미래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연대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전북지역 지역혁신사업(RIS)의 모빌리티분야 활성화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

이덕진 센터장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전북지역에 있어 매우 중요한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며 “전북지역 내 대학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관련 분야 인재 양성 및 핵심 공동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나아가 전북지역 미래모빌리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전북대학교 LINC3.0사업단 친환경미래모빌리티센터는 전북지역 미래모빌리티 분야 인재양성 및 산업활성화를 위해 군산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군장대 LINC3.0사업단 미래자동차센터, 전주비전대 LINC3.0사업단 친환경모빌리티센터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다면 지역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지난 3일 전남대학교에서 '2023년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국가거점 국립대학 연합회 · 사무국 설립 방안 협의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2023년 제1차 정기회의' 개최
RISE · RIS · 글로벌대학 등 교육부 대학지원 정책 건의 이어져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지난 3일 전남대학교에서 '2023년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협의회에는 회장교인 부산대 차정인 총장을 비롯해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서울대·전남

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10개 회원 대학 총장들과 교육부 구현희 지역인재정책관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에 따르면 제1차 협의회에서는 △국가거점 국립대학 연합회 및 사무국 설립 방안 △의과대학 교원 신규채용

본교/타교 출신 비율 조정 등 고등교육 관련 현안들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총장단과 교육부와의 대화에서는 RISE, RIS, 글로벌대학 등 교육부의 대학지원 정책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총장단은 “지역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정책 마련 시 국가거점국립대학의 책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김혜빈 대학원생

BK21사업 우수 참여인력 선정

전북대학교는 환경에너지융합학과 박사과정인 김혜빈 대학원생(사진)이 2022년 4단계 BK21 사업 우수 참여인력으로 선정,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4단계 BK21사업의 교육연구단 참여 신진연구인력과 대학원생들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에 김혜빈 대학원생이 참여하는 산업·사회문제 해결 분야에서는 전국에서 2명이 선정됐다.

한편 김혜빈 대학원생은 2019년부터 4단계 BK21 사업에 참여해 토양과 바이오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BK21 사업 참여 전후기간에 환경공학 분야 상위 논문인 chemical engineering journal (IF:14.224, 상위 3.05%)를 포함한 환경공학 분야 JCR 랭킹 상위 10% 이내의 국외 학술지(SCI)에 주저자 8편과 13편의 논문이 공저자로 게재됐다. 특히 2건의 국내 특허를 출원했을 뿐만 아니라 24건의 국내외 학술회 발표와 4건의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장은성 기자



지난 4일 전라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 제6회 졸업식이 열렸다. 이날 졸업하는 학생은 총 47명으로 평균 연령은 61세, 최고령 졸업생은 77세다.

“아름다운 도전에 응원 보냅니다”

전라중 부설 방송통신중 졸업식

지난 4일 전라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교장 권희숙) 제6회 졸업식이 열렸다.

이날 졸업하는 학생은 총 47명으로 평균 연령은 61세, 최고령 졸업생은 77세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인해 졸업생들만 강당에 모여 진행했으나, 올해는 가족들도 모두 참여해 함께 축하했다.

졸업생들은 대부분 전주여고와

전주에 진학해 고등학교 생활을 하게 된다.

권희숙 교장은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졸업생들의 앞날에 행복과 영광을 기원하며, 아름다운 도전에 힘찬 응원을 보낸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개교한 전라중학교 부설방송통신중학교는 지금까지 총 488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장은성 기자

돌봄교실 목적 · 취지 안내

도교육청, 사립유치원 돌봄교실 운영 지원 연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6일 2층 강당에서 2023학년도 사립유치원 돌봄교실 운영 지원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된 이날 연수는 오전에는 방과후 과정 연장 돌봄교실 유치원 담당자 78명이, 오후에는 온종일·저녁 돌봄교실 유치원 담당자 3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연수는 돌봄교실 유치원 업무 담당자들에게 돌봄교실의 목적과 취지를 안내하고, 주요내용을 설명해 안정적인 돌봄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올해 온종일 돌봄교실 11개원, 저녁 돌봄교실 30개원, 방과후 과정 연장 돌봄교실 120개 학

급을 지원한다.

방과후 과정 연장 돌봄교실은 방과후 과정 최소 보장 시간(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후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또 저녁 돌봄교실은 방과후 과정 최소 보장 시간 이후부터 오후 8시까지, 온종일 돌봄교실은 아침돌봄, 교육과정·방과후 과정, 저녁돌봄까지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주현화 학교교육과장은 “저소득층·한부모·다자녀·맞벌이 가정 등에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자 한다”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유아와 학부모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교육연수원, 지방공무원 학습연구회 운영

자율 형태로... 10일까지 공모 17팀 선정 · 지원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은 지방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 및 현장맞춤형 업무개선을 위한 지방공무원 학습연구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학습연구회는 ‘학습동아리’의 자율성과 내가 만드는 맞춤형 연구 지원의 장점을 접목한 것으로, 자율적인 연구의 형태로 운영된다.

특히 실천적 과제 중심의 연구를 통해 교육현장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정책 참여를 현실화하는 데 목적

이 있다.

올해는 지정과제 13팀, 자율과제 17팀 등 총 30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자율과제 학습연구회는 공모를 통해 선정, 15명 내외로 팀을 구성한다. 오는 10일까지 K-에듀파인을 통해 공모 신청서·활동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선정 결과는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학습연구회에는 300만원을 지원한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2023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

최초 합격자 234명... 오늘부터 3일 내 등록 마쳐야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6일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2023학년도 정시모집 최초 합격자 234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합격자는 일반전형 224명, 특별전형 10명으로 전형별 평균 경쟁률은 205:1이다. 특히 수능위주의 일반전형 경쟁률은 208:1로 집계됐다.

이날 전주교대에 따르면 올해 경쟁률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전국 교대 평균 경쟁률(1.86:1)을 상회하

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합격자들은 7~9일 3일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미등록 인원에 대한 추가 합격자 발표는 10~16일까지 대학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박병춘 총장은 “개교 100주년을 맞아 입학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즐거움과 지혜로운 대학생활을 통해 학문의 길을 넓혀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과학영재교육원 학생들, 연구성과 ‘우수’

사사과정 연구성과 발표대회서 4개팀이 수상

전북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원장 송규정)은 전국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사사과정 연구성과 발표대회에서 과학기술원 총장상 1팀을 비롯해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상 1팀, 과학영재교육원 원장협의회장상 2팀 등 모두 4개팀이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이 대회는 전국 27개 과학영재교육원 사사과정 학생들이 참여한다.

지난 1월 162개팀 7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의 우수한 연구성과를 공유했다.

과학기술원 총장상에는 중등사사과정 물리반 유도음, 이민석 학생이 최대인 과학교육학부 교수의 지도를 받아 LED 광원을 이용한 플로이드 음역에서의 산란 현상 탐구라는 연구주제를 발표해 수상의 영

예를 얻었다.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상은 중등사사과정 정보과학분야(지도교수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김이비)에서 ‘딥러닝을 이용한 수어 인식’라는 연구주제에 참여한 정보과학반 김동형, 김하은 손하람, 안지호, 양승열 학생이 받았다.

이 외에도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원장협의회 회장상은 중등사사과정 수학분야(지도교수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정승조) 최보나·최수열의 ‘주기’, 지구과학분야(지도교수 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 양우현) 전북 고창군 동호리 조간대의 2022년 5월 퇴적물 입도와 표층 퇴적층의 물성 특성 연구가 각각 수상했다.
/장은성 기자

전국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사사과정 연구성과 발표대회 모습.